

일반
논문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

임미리 _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요약

이 연구는 이 연구는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것으로서 부마항쟁이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는 이유, 항쟁에서 도시하층민이 가졌던 정치적 상상력을 규명하고자 했다.

부마항쟁은 학생들의 낮 시위로 시작됐으나 밤 시위는 도시하층민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에게는 시위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었고 도시하층민들이 가진 분노가 항쟁을 이끄는 유일한 에너지였다. 도시하층민들은 파출소와 경찰서 외에도 국가기간 시설을 습격했으며 마산에서는 '불 꺼라' 하는 구호와 함께 인근 상가와 민가에도 투석했다. 기존의 위계와 질서가 사라진 시위 공간에서 도시하층민은 새로운 정의의 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1046964).

**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했다가 재심 판정을 받은 뒤 수정을 거쳐 이곳에 다시 기고한 것이다. 비록 1차 심사에서 '계재 가'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정 요구가 있었다. 허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재를 수락해 준 것으로 판단한다. 수정 요구는 논문의 취지와 상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이 향후 부마항쟁 연구에 조그만 기여라도 한다면 전적으로 두 번에 걸친 여섯 심사위원들의 심도 깊은 심사평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에 참가한 것은 구체적인 정치권력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또 시위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으며 그들의 폭력은 정의로운 일이자 기분 좋은 놀이였고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부마항쟁은 학생들의 시위가 계기가 됐지만 밤 시위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시하층민은 단순히 민중이나 시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시위 공간 자체가 목적이었던 도시하층민들에게 항쟁은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일 수도 없었다. 부마항쟁은 공권력과 독재정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도시하층민들이 폭력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며 세상에 그들의 분노를 보여줬던 시공간이다.

■ **주요어:** 부마항쟁, 도시하층민, 폭력시위, 밤 시위,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

1. 서론

이 연구는 1979년 발생한 부마항쟁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하층민을 항쟁의 주체라고 본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쟁 기간 발생한 폭력을 중심으로 참여자 간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도시하층민에게 폭력이 갖는 의미를 살핌으로써 도시봉기의 주체로서 도시하층민이 ‘시민’이나 ‘민중’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부마항쟁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부마항쟁은 발생 직후부터 꾸준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파악되다가 점차 민중운동적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했다(홍순권 2011, 28). 또 차성환(2009)은 ‘합리적 민중상’을 전제한 가운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독재민중운동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달리 도시하층민을 항쟁 주체로 본 연구는 김원에 의해 시작됐다.

김원은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에서 도시하층민을 “도시노동자, 도시빈민, 실업자, 도시 하층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하고 “노동조합이나 조직에 의해 조직된 조직대중이 아닌 개인과 집단”으로서 “민중이나 계급으로 환원불가능한 주체”라고 정의했다. 또 이에 따라 부마항쟁은 “1970년대 후반 도시하층민의 모습을 드러내는 밑으로부터의 도시봉기”라고 주장했다(김원 2006, 452~453).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김원 스스로가 같은 논문에서 예상했듯 “도대체 민중이나 하층민, 거리의 양아치가 뭐가 다르냐?” 또는 “지식인의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도시하층민의 투쟁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수렴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김원은 “이질적이며 상이한 주체들”을 “통합된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의식적 욕망’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자답했다(김원 2006, 450). 하지만 도시하층민 또는 그들에 의한 도시봉기가 갖는 ‘이질성’이 어찌서 민중이나 민주화운동으로 통합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환원불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논쟁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다. 도시하층민의 이질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민중의 속성에는 그것까지

도 포함돼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서익진이 부마항쟁의 경제적 배경을 연구한 논문에서 “도시하층민은 … 개발주의가 내장하고 있는 사회관계의 내적 모순에 대해 저항했던 ‘밑으로부터의 봉기적 실천’의 주체”라는 김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결론에 가서 부마항쟁의 주체를 “대학생과 서민 대중 그리고 도시하층민을 아우르는 ‘민중 블록’”(서익진 2018, 167)이라고 본 까닭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부마항쟁의 주체를 민중이 아니라 도시하층민으로 보고, 그 성격을 민주화운동이나 민중항쟁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들이 주도한 ‘낮 시위’와 비교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밤 시위’는 학생시위의 연장선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저항인가?

둘째, 밤 시위에 주로 모습을 드러낸 깡패, 구두담이, 술집 종업원, 하층노동자, 노점상이나 행상 등의 도시하층민은 어떤 존재인가? 민중이나 시민의 일부로 수렴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도시하층민의 시위 참여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민주화운동 또는 민중항쟁으로 통합 또는 환원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민중으로 수렴될 수 없는 도시하층민이 가지는 정치적 상상력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부마항쟁의 전개 과정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보고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¹⁾ 2018. 이하 『보고서』)를 주로 참고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의 심리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구

술기록을 다수 인용했다. 구술기록은 다섯 권의 『부마민주항쟁 증언집』(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²⁾ 2011~2019. 이하 『증언집』³⁾)과,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사업회⁴⁾ 1989. 이하 『자료집』)을 주로 참고했다. 전자의 『증언집』에는 165명의 증언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52명이 도시하층민에 해당한다. 후자의 『자료집』에는 32명(도시하층민 3명)의 증언이 수록됐으며 이 중 11명은 전자의 『증언집』에도 다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두 자료에 담긴 증언자의 수는 모두 186명으로 부산과 마산이 각각 68명, 118명이다.

2. 낮 시위와 밤 시위: 주체 및 양상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도심 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은 16일에서 18일, 마산은 18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생했다. 항쟁은 16일 부산대 학생들이 교내 시위 후 가두로 진출하면서 시작됐다. 해가 지면서 시민들이 합세했고 파출소를 비롯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발생했다. 17일에는 부산대뿐 아니라 동아대 등 다른 대학 학생들도 교내 집회 후 가두로 진출했으며 전날처럼 일몰 뒤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폭력시위가

-
- 1) 이하 심의위원회. 『보고서』는 2018년 7월 6일 제42차 본회의 통과본을 말한다.
 - 2) 이하 기념사업회.
 - 3) 마산편 3권, 부산편 2권으로 구성돼 있다.
 - 4) 이하 10주년사업회.

전개됐다.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09시 30분 휴교 조치를 모르고 등교한 부산여대 학생들의 서면로터리 방면 침묵시위와 19시 수산대 교내 시위를 제외하고는 학교별 가두 진출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 19일까지 간헐적으로 시위가 이어졌지만 도심 시위 발생 시간은 대체로 일몰 후였다(심의위원회 2018, 86~103, 107, 109).

마산의 경우 부산 시위의 영향을 받아 시작됐고 18일 경남대 학생들이 교내 집회 후 16시 30분 경 교외로 진출하면서 본격화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해가 지면서 시민들이 합세했고 부산과 비교해 시민 비율이 더욱 컸다. 19일에는 대학생들의 교문 진출이 없었고 일몰 뒤 시민들 위주의 폭력시위가 전개됐다(심의위원회 2018, 119~143). 종합하면 부산과 마산 모두 첫 시위는 학생들이 시작했으나 해가 진 뒤에는 시민들의 폭력시위가 주가 됐다. 또 부산은 18일 0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학생들이 도심 시위를 주도하는 일은 없었으며 마산도 항쟁 이틀째인 19일부터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주도했다. 이것은 부산은 18일 이후, 마산은 19일 이후 일몰 시간 전 도심 시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산과 마산의 항쟁은 모두 낮과 밤의 시위가 주체와 양상 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낮 시위는 학생들이, 밤 시위는 시민들이 주도했으며 밤 시위는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는 시위 주체와 양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부마항쟁 일지*

날짜	시간	시위 내용
10월 16일	10시 30분	[부산 부산대] 운동장에서 5000여 명 시위, 최루탄 난사.
	10시 55분	[부산 부산대] 시위대 인원 1000여 명, 구 정문 뚫고 가두시위 1진 전개
	11시 30분	[부산 부산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담장 허물고 진출(2진)
	12시 20분	[부산 산업도로] 사대부고 통해 가두시위 3진 산업도로 진출
	16시 25분	[부산 광복동] 광복동 일대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
	17시 00분	[부산 광복동] 경찰, 병력 증강하였으나 진압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18시 40분	[부산 남포동] 부영극장 앞 시위(TBC-TV 차량이 시위대 투석에 밀려남)
	20시 00분	[부산 부산대] 부산대 임시휴교
	20시 30분	[부산 영선고개길] 부산 도심 파출소 습격: 충무파출소 습격 이후 남포, 부평, 보수, 제1대청파출소, 경남도청, 부산KBS, 부산MBC, 부산일보 습격
	22시 50분	[부산 보수동] 부산 도심 파출소 습격: 흑교, 중앙, 충무파출소 습격
	10월 17일	[부산 부산대] 부산대 학생 700여 명 '유신철폐, '학원자유', '학원시수' 구호 외치고 행진
	13시 00분	[부산 대신동] 동아대학생 1000여 명 교외 진출 시도
	16시 20분	[부산 광복동] 버스정류소에 하차한 부산대 학생들이 모여들
	18시 00분	[부산 광복동] 국제시장 상인들은 시위대를 숨겨주거나 음식을 주는 등, 도움을 줌
	18시 00분	[부산 남포동] 동아대학생 1000여 명 모여들기 시작
	19시 00분	[부산 영선고개길] 남포파출소 재습격해 창유리, 경찰장비 파손*
	19시 30분	[부산 대신동] 중부산세무서 습격 이후 서대신3동사무소, 서부경찰서, 부산MBC, 부산KBS, 부산일보, 경남도청, 서부·충무·중부·초량1·부민·고관·남포·흑교파출소 습격, 2관구 사령관 정상만 소장외 차 파손.
	23시 45분	[부산 대신동] 구덕파출소 습격
10월 18일	0시 00분	[부산] 부산 비상계엄령 선포
	13시 30분	[마산 경남대] 경남대학생 도서관 앞 (속칭)노인정 앞에서 시국 토론
	17시 00분	[마산 구마산] 경남대학생 3,15의거탑 근처로 계속해서 모여들
	18시 20분	[마산 창동] 시위대 모여들
	18시 35분	[마산 창동] 남성파출소 습격

	19시 45분	[마산 구마산] 수출자유지역 경유 시위
	20시 00분	[부산] 남포파출소 습격
	20시 00분	[마산 구마산 용마맨션] 마산 민주공화당사 습격 이후 산호·남포·양덕·북마산·회원·남성·자산·오동·남성동 파출소, 마산경찰서, 마산소방서, 마산우체국, 마산지청, 박종규 국회의원 집, 마산세무서 습격
10월 19일	0시 00분	[마산 창동] 역전파출소 습격
	10시 00분	[마산 창동] 경남대학생 55명 남성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나 자진해산
	17시 00분	[마산 구마산] 마산 병력 투입
	18시 00분	[마산 창동] 수백명의 시위대, 구호외치며 시위
	20시 00분	[마산 창동] 마산MBC, 경남매일신문사 습격
	20시 30분	[마산 창동] 남성파출소 습격 이후 오동파출소 관내 민가, 오동동 상가, 청과시장 주변 건물에 투석, 공중전화부스 파손, 산호파출소 습격
	23시 00분	[마산 경남대] 산복도로에서 제일여고까지 경남대학생들 시위
	23시 55분	[마산 구마산] 마산 시위 서서히 종료되기 시작
10월 20일	12시 00분	[마산 구마산] 마산 일대 위수령 발동

주: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운영하는 웹아카이브인 '부마아카이브' 중 '부마일지'(http://www.buma1979.com/portal/bumaDiary/list.do.)를 기본으로 『보고서』의 항쟁 전개 과정(76~120쪽)을 참고해 작성했다. 아카이브의 '부마일지'는 10월 15일의 4건을 포함해 15일에서 20일까지 총 144건으로 구성돼 있으나 시위 준비 과정 및 도시 집결 과정 등을 삭제하고 일련의 '습격' 사건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항목을 축소하였다. 또 '부마일지'와 『보고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고서』에 따랐다.

* '부마일지'의 17일 19시 상황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영선고개와 남포파출소는 떨어져 있는 곳으로 착오가 있는 듯하다.

1) 시위 양상: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과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

〈표 1〉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항쟁 과정의 주요 사건을 시간대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낮 시위가 도시 하층민들을 위주로 한 밤의 폭력시위로 변화하는 지점과 양상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굵은 글씨는 시위 양상이 급격히 바뀌는 지점으로 부산은 16

일 18시 40분, 17일 19시 00분, 마산은 18일 18시 35분, 19일 20시 00분경이다. 10월 중순의 일몰 시간은 대략 17시 50분 전후이므로 해당 시각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네 곳의 공통점은 ‘습격’이라는 데 있다. 부마항쟁의 밤 시위 특징이 시민들이 가세한 ‘폭력’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폭력은 학생들이 주도한 낮 시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차이는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 밤 시위에서는 차량 등의 사물이나 파출소 같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또는 습격이 있었다는 게 낮 시위와의 차이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주도한 낮 시위에서의 폭력 장면으로 대체로 일몰 전이지만 일몰 이후에도 전혀 없지는 않다.

부산 16일 오후 1시경 : 부산대 70여 명의 시위대(1진)가 구 정문 수위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수위실 옆 담벼락을 부수고 시내로 진출. 이들은 시내로 나오자마자 10명 정도의 기동경찰대와 맞닥뜨렸으며 이에 학생들은 구 정문 앞 가게에 놓인 빈병을 집어 던지며 저항. 이 과정에서 경감 홍○○ 외 19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인근 도로 주변의 마산상회 등 7개 상점의 유리창 13장이 파손됨(심의위원회 2018, 86).

부산 16일 12시 40분경 : 부산대 학생들이 사직동 미남로터리에서 시내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150명가량의 부산진경찰서(서장 안연세) 소속 경찰 병력과 대치해 인근 하수도 공사장의 자갈 등을 던지며 저항. 방패를 갖추지 못한 전경대는 투석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림(심의위원회 2018, 87).

부산 17일 18시경 : 부산시 중구 남포동 소재 부영극장 앞에서 동아대 학생 약 1,000여 명이 부산시청 쪽으로 진출. 기동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은 돌, 유리병, 각목 등을 던지며 20~30명씩 분산됨(심의회 2018, 99).

마산 18일 16시 30분경 : 경남대 화영운동장을 지나 후문을 통해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은 창원군청 앞 도로상에서 시민들과 합세하여 약 30여 명의 시위대를 형성해 ‘유신철폐’, ‘언론자유’, ‘구속 학우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시위대는 이를 제지하고자 출동한 진압경찰관 8명과 대치하며 투석전을 전개(심의회 2018, 119).

위 네 건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가세 없이 학생들이 시위 전반을 주도했다. 낮 시위와 밤 시위의 폭력이 갖는 차이는 무엇일까. 임미리는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에서 대중시위의 폭력은 공권력과의 대치를 기준으로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과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임미리 2019a, 20~22). 전자는 공권력과 대치한 공간에서 공권력이 그어놓은 물리적 금지선을 넘어서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이고 후자는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공간에서 추상적인 적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폭력을 말한다.⁵⁾ 전자가 공권력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폭력은 국가권력을 포함해 언론 권력, 자본 권력 등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 있

5) 두 전선은 공권력과의 대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데서 대립적이지만 ‘물리적 전선’, ‘추상적 전선’이라는 비대립적 단어로 명명한 것은 두 전선이 각각의 가장 큰 속성은 전자의 경우 공권력과의 물리적 대치, 그리고 후자는 적의 추상성에 있기 때문이다.

〈표 2〉 밤의 폭력시위의 타격 대상(지역별, 대상별)

부산	타격 대상	마산
파출소 다수, 서부경찰서, 2관구 사령관 정상만 소장의 차	공권력	파출소 다수, 마산경찰서, 마산검찰청
경남도청, 중부산세무서	공공기관	마산소방서, 마산세무서, 마산우체국, 마산법원, 전 신전화국
	정치권력	마산 민주공화당사, 박종규 국회의원 집
부산KBS, 부산MBC, 부산일보, TBC-TV 차량	언론방송	마산 MBC, 경남매일신문사
	민간	불켜진 민가, 오동동 상가, 청과시장 주변 건물에 투 석, 공중전화부스, 버스·택시 등 차량 파손

다. 이에 따르면 부마항쟁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폭력은 물리적 전선에서의 폭력에 해당하고 밤 시위에서 시민들이 주도한 폭력은 추상적 전선에서의 폭력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행사한 폭력은 경찰의 저지를 넘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것이고 밤 시위의 폭력은 공권력에 대한 대응도 아니고 시위대의 ‘전진’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폭력 대상은 낮 시위와 밤 시위에서 달랐을 뿐 아니라 부산과 마산의 차이도 있었다. 〈표 2〉는 〈표 1〉의 밤 시위에 나타난 폭력을 지역과 대상 별로 나눠본 것이다. 타격 대상은 공권력은 물론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민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정치권력과 민간에 대한 타격이 마산에서만 있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민주공화당사와 박종규 국회의원의 집을 습격한 것은 첫날인 18일이며 각각 20시, 22시 45분경에 이뤄졌다. 반면 부산에서는 공화당사나 국회의원에 대한 타격이 전혀 없었는데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산·진해·창원 선거

구의 주요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였던 데 반해 부산에서는 2명씩 뽑는 5개 선거구에서 신민당의 이기택, 김영삼, 김승목, 정해영, 무소속 예춘호가 1등으로 당선했고 2등 당선한 양찬우, 박찬중, 김임식, 김재홍 등 공화당 의원들도 정권 실세라고는 할 수 없었다.

민간에 대한 타격은 왜 마산에서만 발생했을까. 시위대의 폭력 행사는 권력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파출소에 대한 타격이 특히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시설이나 민간 부문은 권력과는 거리가 있다. 왜 타격했을까. 답은 시위 구호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에서는 낮과 밤 모두 ‘유신 철폐’, ‘독재 타도’가 주로 외쳐진 데 반해 마산에서는 ‘불 꺼라!’ 하는 외침이 주로 나왔다(10주년사업회 1987, 210; 심의위원회 2018, 132). 즉 민간 부문에 대한 타격은 불 켜진 곳을 향해 소등을 요구하며 이뤄진 것이다. 시위대가 검거를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소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산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⁶⁾ 이유는 시위대 내부에서 도시하층민들이 갖는 힘이 마산에서 더욱 컸기 때문이다.

마산의 경우 첫날인 18일부터 도심 시위 주도권이 시민에게 넘어간 데 반해 부산에서는 18일 계엄령 발령 이전 16일과 17일 이른 저녁까지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두 곳 모두 밤 시위를 도시하층민이 주도했다. 또 부산의 경우 학생 시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얘기가. 구체적으

6) 부산에서는 16일 경찰이 “빨리 집에 가라고 불을 꺼버렸”다는 증언이 있다(기념사업회 2019b, 291, 김형기(부산YMCA 간사) 구술). 하지만 이 때문에 마산과의 차이가 발생했는가는 미지수다.

로는 부산의 경우 학생 수와 조직력에서 마산에 앞섰고 18일 부산 지역에 발령된 계엄령도 도시하층민 주도의 밤 시위 확산에 걸림돌이 됐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산에서는 대학생 검거자 수가 37.5%였지만 마산은 11.8%에 그쳤다. 양쪽 모두 일반 시민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부산에서 학생 수가 많았던 것이다. 또 부산에서는 16일 부산대의 교문밖 진출과 도심 재집결이 성공하면서 이른 저녁까지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고⁷⁾ 17일 부산대 휴교령 뒤에는 동아대가 합세해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⁸⁾. 반면 마산에서는 첫날인 18일 경남대 학생들의 교문밖 진출이 경찰 저지로 무산된 뒤 산발적인 진출이 있었던 데 그쳤고 19일에도 오전 10시 경남대 학생 55명이 남성과출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가 자진 해산한 것이 전부였다(심의위원회 2018, 119~122, 136).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18일 이후 밤 시간대에 도시하층민 주도의 간헐적인 시위가 이어졌지만 계엄령 발령으로 시위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데 반해 마산에서는 20일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심의위원회 2018, 143) 전까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7) 16일 오전 부산대 1진 700여 명, 2진 500여 명, 3진 400여 명 시내 진출. 14시 부영극장과 미화당백화점 앞, 15시 30분 창선파출소 400여 명, 16시 광복동 거리 500여 명, 19시 40분 충무로 로터리 800여 명 집결(심의위원회 2018, 86~91).

8) 17일 10시 20분 부산대 700여 명 가두 행진, 11시 18분 400여 명 온천극장 앞 집결(심의위원회 95~96). 18시 동아대 1,000여 명 부영극장 앞 집결(심의위원회 2018, 99).

2) 시위 주체: 학생에서 도시하층민으로

앞에서는 부산과 마산 모두 낮 시위에서 밤 시위로 넘어가면서 주도 세력이 대학생에서 시민으로 바뀌었으며 마산의 경우 민간 부문에 대한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는 밤 시위를 주도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피검자 및 구속자 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지역별 피검자 직업

구분	부산		마산	
	피검자 수(명)	비율(%)	피검자 수	비율(%)
공무원	2	0,2%	4	0,8%
공원	121	11,4%	127	26,7%
기타	17	1,6%	18	3,8%
노동	42	4,0%	64	13,5%
농업	10	0,9%	4	0,8%
대학생	397	37,5%	56	11,8%
무직	115	10,9%	84	17,7%
민방위대원		0,0%	1	0,2%
상업	43	4,1%	14	2,9%
선원	27	2,6%		0,0%
운전수	17	1,6%	11	2,3%
잡급직	129	12,2%		0,0%
재수생	57	5,4%		0,0%
은행/회사원	81	7,7%	92	19,4%
합계	1,058	100,0%	475	100,0%

주: 『보고서』 112쪽 '부산 시위 피검자 현황'과 144·146쪽 '직업별, 일자별 검거 현황'을 참고해 작성.

〈표 4〉 지역별 구속자 직업

구분	고교생	공원	농업	대학생	무직	상업	종업원	운전사	노동	전문대	회사원	기타	계
부산	2	3		31	5	2	6	3	3		2	3	60
마산	1	6	1	30	4	2	3		7	3	3	4	60

주: 『보고서』 168~172쪽 '부산 지역 검찰 구속자 처리 현황'과 229~233쪽 '마산 지역 검찰 구속자 처리 현황'을 참고해 작성. '종업원'은 요리사 또는 배달원을 포함한 음식점 종업원, 상점의 점원 등이며, '공원'은 공장의 단순직 노동자, 회사원은 사무·영업직 노동자를 말한다. '상업'은 고용되지 않고 자기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표 3〉과 〈표 4〉를 비교하면 대학생의 경우 피검자 수에 비해 구속자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 피검자는 각각 37.5%와 11.8%인데 구속자는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다른 직업에 비해 대학생 구속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인데 이 같은 특성은 피검자 수에도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경우 참가율에 비해 검거된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낮 시위 경우 밤에 비해 검거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고 경찰도 일반 시민보다 대학생 검거에 좀 더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까닭을 묻지 말고 다 연행하도록 지시”했으며(심의위원회 2018, 96)⁹⁾ 항쟁 종료 후 피검자는 부산과 마산 모두 대체로 대학생 또는 사회단체 활동가였다.¹⁰⁾

9) 송두한(부산대 정외과)은 17일 국제시장에서 취직 축하 식사를 갖고 거리에 나왔다가 연행됐다고 증언했다. 또 그 시각 인근에서 데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기념사업회 2013a, 320).

10) ●부산: 남성철(서적 판매(노승일 구술), 부산대 15일 시위 모의, 20일(체포일, 이하 같음), 황선용(서면서점 점원, 부산대 15일 시위 모의, 20일), 김영일(국제사면위 간사, 20일), 이동관(동아대 법학과 3학년, 20일), 이진걸(부산대 기계설계 3학년, 20일), 정광민

검정이 대학생들을 더 많이 검거하거나 구속한 까닭은 굳이 항쟁 당시에 돌아가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마항쟁을 학생·지식인 주도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학생들이었고 학생시위가 사라지면 불량배로 불린 시민들의 시위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연행된 학생 1백여 명과 학생들의 소란에 합세한 불량배 1백여 명”(동아일보 1979/10/18)¹¹⁾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밤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은 학생시위에 편승한 불량배에 불과했을 뿐 시위의 한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병력의 배치도 대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산의 경우 항쟁 사흘째인 18일 04시 병력이 배치된 37곳 가운데 10곳이 대학이었다(심의위원회 2018, 155~156).

대학생 이외에 항쟁에 참여한 ‘일반 시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각성한 민주시민인가, 자본가에 저항하는 노동자인가, 지배세력에 저항하는 피지배 민중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 “수출자유지역 근

(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20일), 황현규(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20일), 김○○(가정교사 양서조합간사, 20일), 노승일(서적상, 21일), 김범승(동아대 국문학과 3학년, 21일), 전도걸(부산대 경제학과 2학년, 21일), 강명규(동아대 정치외교 2학년, 23일), 김재구(동아대 철학과 3학년, 24일), 백하현(부산대 국문학과 3학년, 24일), 이원우(동아대 체육과 3학년, 25일)

●마산: 박인준(경남대 법학과 2학년, 24일), 장○○(경남대 경제학과 3학년, 24일), 한양수(경남대 법학과 2학년, 26일)(심의위원회 2018, 168~172, 229~233)

11) 그밖에 “지각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합세한 불순분자”(경향신문 1979/10/18) 같은 표현도 있다.

로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가야백화점까지 갔다가 별 성과 없이 시내로 다시 돌아온 바 있다”(10주년사업회 1989, 196)는 증언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정황은 없다. 다음 구술은 밤 시위를 이끈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준다.

“(피출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제 같이 그런 땀땀한 직업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 어떤 특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걸로”(기념사업회 2013b, 24, 28).¹²⁾

“좌우간 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 업소에 그 아르바이트 겸 뭐 종업원 이런 사람들”(기념사업회 2013b, 417).¹³⁾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있고 … 그 다음에 한 몽텅이가 있는데 거기 시민들이라. 근데 그 차림이 … 되게 허술하이 이래. 젊은 사람들인데, 요새 같으면 노숙자에 가까운”(기념사업회 2013b, 444).¹⁴⁾

“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은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룸펜, 빈민들이었고 학생들은 맨 먼저 이탈”(10주년사업회 1989, 122).¹⁵⁾

“다방 아가씨와 술집의 호스티스들까지 나와 박수치고 고향지르고”(10주년사업회 1989, 125).¹⁶⁾

12) 부산 강의식(봉제회사 직원) 구술.

13) 부산 심상집(부산MBC 기자) 구술.

14) 부산 임수생(국제신문 기자) 구술.

15) 부산 김정호(고1) 구술.

16) 부산 이대우(부산대 교수) 구술.

“앞장을 서서 시위 대열을 이끈 것은 주로 ‘깡패’들”(10주년사업회 1989, 212).¹⁷⁾

“중국집 배달원, 술집 종업원, 노동자, 기층시민들의 항쟁사”(10주년사업회 1989, 216).¹⁸⁾

“구두담이 등의 사람들이 가세했으며 앞쪽에 섰던 사람은 거의가 립펜”(10주년사업회 1989, 219).¹⁹⁾

“밤이 으스스해지면서 소위 김원 선생이 이야기 했던 이제 도시빈민들의 어떤 그런 ... 술집에 보이 뭐 구두담이, 신문팔이 ... 짐꾼들 ... 그러니까 힘도 세죠”(기념사업회 2013a, 267~268).

깡패, 구두담이, 술집 종업원, 립펜 ... 등. 김원은 이들이 조직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민중이나 대중으로 환원되지 않는 ... 이질적이고 비균질적인 사회집단이라는 점에서 ‘도시하층민’이라고 불렀다(김원 2006, 422). 1960년 4월 혁명 때도 밤 시위가 있었지만 그때와는 달랐다. 1960년 서울의 밤 시위는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부마는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생들이나 그런 어린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주로 20

17) 마산 주대환(서울대 제적생) 구술.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및 제적됐으며 1979년 제헌절 특사로 출소 후 고향인 마산에 머물던 중 항쟁을 목격했다. 주대환은 시위 군중들의 주공격 대상이 파출소였던 것은 군중을 이끈 사람들이 ‘깡패’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8) 마산 이선관(문방구) 구술.

19) 마산 공명욱(고교생) 구술.

대 30대가 많았고”(기념사업회 2011, 674)²⁰⁾ 고등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없었다(기념사업회 2019a, 337).²¹⁾ 언론과 정부에서 ‘불량배’라고 부른 사람들이 시위 대열을 이끌었다.

김하기는 『부마민주항쟁』에서 “파출소를 파괴, 방화한 사람들 중에는 당국의 발표대로 깡패, 불량배로 불리는 사람들도 간혹 섞여 있었다. 그러나 시위군중 대부분은 수출자유지역의 근로자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대학생 …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착하고 선량한 시민들”(김하기 2004, 95)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3.15의거 정신을 잇는 상징적인 행위”(김하기 2004, 95)라고 찬사한 박종규 국회의원 집 타격 때 ‘선량한 시민들’의 선두에 선 사람들은 바로 “깡패, 불량배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도시하층들은 어떻게 밤 시위대를 이끌 수 있었을까. 해가 지면서 학생들이 떨어져 나갔다고는 하나 부산의 경우 밤에도 학생 참가자 수가 제법 됐다. 도시하층민들이 시위를 이끌 수 있었던 까닭은 양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학생들에게 거대한 시위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대에서 15일로 예정한 시위가 불발되면서 주류 운동권과는 거리가 있는 정광민이 16일 시위를 주도했고²²⁾ 마산의 시위

20) 마산 지경복(정비공장 노동자) 구술.

21) 마산 변종민(마산상고 학생) 구술.

22) 부산대는 15일 10시 시위를 하기로 했으나 20여 분 기다려 학생들이 오지 않자 지도부가 해산했고 40분경 학생들이 모였을 때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식을 들은 정광민이 다음날 시위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모았다.

주동자들도 의식화, 조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공개 서클 출신이 아니라 공개서클 출신이거나 소위 말하는 ‘의리파’였다(이은진 2008, 147). 그들은 이론적, 실천적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세도 상상하지 못했다.²³⁾ “시위를 주도한 부산대생들과 시민들을 엮어낼 올바른 대중조직과 대중노선이 없”는 가운데 “대중의 자연발생적 에네르기”만이 시위를 이끄는 힘이였다(10주년사업회 1989, 137). 그런 상황에서 도시하층민들은 누구보다 큰 분노를 밀친 삼아 밤의 폭력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시위 주체 간 관계 : 우호와 적대, 연대와 불화

앞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낮 시위와 달리 밤 시위에서는 공권력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 대한 물리적 타격이 있었고 그 주체는 도시하층민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는 그들이 “민중이나 대중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질적 존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쟁 구성원 간 관계를 내부의 연대 또는 불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시위 양상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경우, 경찰의 제지 없이 행렬을 이룬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앞것은 대체로 낮 시위에 해

23) 부산대 시위를 주동한 정관민은 “학교를 떠나오면서도 ‘민중항쟁’으로까지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16일 밤 저녁뉴스를 보면서 폭발적 민중투쟁에 나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10주년사업회 1989, 111)라고 증언했다.

당하며 시위대는 주로 학생들로 구성됐다. 뒤엣것은 낮 시위에도 있었지만 습격이나 타격 같은 폭력을 수반한 것은 대체로 밤 시위에 해당하며 도시하층민들이 선두에 서고 학생이나 그밖의 시민들이 뒤를 따르는 형식이었다. 이 장에서는 폭력시위를 둘러싼 연대와 불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위 행렬 인근에서 이를 구경하거나 지나친 사람들, 그리고 인근 상가나 민가의 주민들도 도망간 시위대를 숨겨주거나 또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위대와 관련했기 때문이다.

1) 밤의 폭력시위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응

밤 시위에서는 단순 투석뿐 아니라 방화나 파괴 같은 과격한 폭력도 행사됐다. 낮 시위의 학생들 역시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돌을 던졌기 때문에 단순 투석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나 좀 더 과격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달랐다. 해질 때까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도 “파출소가 불타는 걸 보고는 심상찮은 마음에”(기념사업회 2011, 117)²⁴⁾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늦게까지 시위 행렬에 남았더라도 뒤에서 돌을 함께 던지는 정도였지 적극적으로 폭력에 앞장서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파괴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24) 마산 김철수(경남대) 구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눈빛도 그랬지만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시위 군중들이 불이 켜져 있는 집에 돌맹이를 던진다든가, MBC 방송국이라든지 파출소에 돌을 던지면 사람들이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다. … 그들이 소위 영웅처럼 보이더라고요. … 그건 단순히 그 건물, 그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고 있는 세력, 소위 독점자본이라든지 토호세력에 대한 거부이고, 우리를 탄압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거부하거나 미안하거나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 희열을 넘어서 황홀한 감정에 휩싸이고 그랬어요”(기념사업회 2011, 74).²⁵⁾

위와 같은 인식은 다른 증언에서도 발견된다. 마산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조영건은 대구 10·1사건이나 3·15의거의 연장선상에서 항쟁을 파악했고(기념사업회 2019b, 475), 학생운동을 하다가 서울대에서 제적돼 고향인 마산에 와 있던 주대환은 “무지한 민초에 잠재한 거대한 힘의 폭발 … 정의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본능적 욕구”로 인식했다(10주년사업회 1989, 213).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들은 같이 던졌지만 파괴할 생각은 아니었다. 대학생은 아니고 좀 한이 많이 맺힌 사람들로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시민의 지지를 과연 얼마나 받을까 생각했다”(기념사업회 2013a, 235~246)²⁶⁾거나 “남포파출소 화염병 투척 … 아무리 시위

25) 마산 김종대(마산시청) 구술. 당시 YMCA 활동을 했으며 나중에 YMCA 전국연맹 회장, 마산시의원을 지냈다.

를 해도 이견 심각하다”(기념사업회 2013a, 98)²⁷⁾ 같은 생각이 더욱 많았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린 경우도 있었다.

주대환과 조갑제²⁸⁾는 “대학생들은 말렸다”(기념사업회 2011, 659), “데모대 가운데에는 공공기관의 습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조갑제 1987b, 45)고 밝혔고, “일반 시민들이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약간 선동적인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학생들이 제어를 해주거나 자제를 시켰”(기념사업회 2019b, 512)²⁹⁾다거나 “순수하게 학생들의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 정권을 뒤집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투석 같은 폭력을 “용납 안 했”다는 증언도 있다(기념사업회 2019b, 647). 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파괴나 방화를 말리는 과정은 대화나 설득이 아니라 “우리 세금이다”, “시민 재산이다.” 같은 고향소리를 통해서였다(기념사업회 2013a, 358, 359)³⁰⁾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나뉘었다. 지지·응원하기도 했지만 외면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시위대가 관공서에 투석 할 때 박수를 쳤으며 연탄재를 내주기도 했다(기념사업회 2013a, 68).³¹⁾ 자정이 가까워 경찰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문을 서로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했고 경찰이 주민

26) 부산 김영(부산대 철학과) 구술. 구술 내용은 연구자가 요약.

27) 부산 김백수(동아대 법학과) 구술.

28) 당시 국제신문 기자.

29) 마산 최상철(대림요업 기능공) 구술.

30) 부산 신재식(부산대 법정대) 구술.

31) 부산 이일호(고신대) 구술.

을 폭행하자 성호동, 교방동 주민들이 모두 데모에 합세하는 일도 있었다 (10주년사업회 1989, 205).³²⁾ 하지만 낮 시위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학생시위대를 기피하는 상점이 생겨났던 것처럼 야간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공공기관 습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조갑제 1987b, 41) 거부감도 더욱 커졌다.

2) 폭력시위대의 일반 시민에 대한 태도

부산에서는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적대감을 보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산의 경우 시민들에 대한 적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마산 시위의 특징으로 말한 ‘불 꺼라’ 구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산에서 시위대가 민간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틀째인 19일로 다음은 그 사례들이다(심의위원회 2018, 137~139).

20시 20분부터 시민극장 일대에 모인 50여 명의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불이 켜져 있는 인근 상가, 점포, 민가에 소등을 요구하며 투석.

20시 32분경 시위대는 오동파출소 관내 민가, 오동동 상가 등에 투석하였으나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

21시경 청과시장 주변 건물에 무차별 투석을 하여 민가 유리창을 파손.

21시 30분경 북마산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서마산 툇게이트로 운행 중인 차

32) 마산 강신형(경남산업전문대 학생) 구술.

량에 투석하고, 운전자가 도망가자 해당 차량을 통닭집에 밀어넣어 냉동기 등을 파손.

22시 30분 회원동 상가 시장에서 80여 명의 시위대가 민가와 점포에 소등을 요구하며 투석.

23시 15분 학생과학관 입구에서 10여 명이 시위하며 길 옆 상점을 공격. 시위는 학생과학관 입구, 오동동, 북마산과출소 인근, 몽고간장 앞 등 4군데 지역에서 계속됐고 23시 5분부터 서서히 종료.

위 사례의 공통점은 ‘불 켜진 곳’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불 꺼라’ 하는 구호와 함께 전조등을 켜 채로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불 켜진 상가가 주요 목표가 됐다. 목적은 검거를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더라도 시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자기보호를 넘어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뺏기 위해 운전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10주년사업회 1989, 204). 그런 점에서 마산의 폭력시위대에게 인근 시민들은 적과 동지 사이에 위치한 어떤 것이었다. 즉, 마음대로 약탈하고 파괴해도 되는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지’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 보호’의 목소리도 있었다. 버스나 택시에 돌을 던지다가 ‘시민 보호’ 구호와 함께 제지당하기도 했고(기념사업회 2011, 218·19)³³⁾, 불 켜진 민가에 돌을 던졌을 때는 “시민은 우리 편”이라는 외침 속에 투석을 멈

33) 마산 박흥기(자동차보험 대리점) 구술.

추기도 했다(10주년사업회 1989, 218). 독립병원을 타격하려다가 시위대 내부의 제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10주년사업회 1989, 292). 하지만 시위대의 자제를 도덕적 판단으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 해석이다. 18일 밤 시위대가 공화당을 습격한 뒤 양덕파출소로 갔을 때 시위대 중 한 명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을 가져나오려다가 제지당한 일도 마찬가지다.(기념사업회 2011, 220·221) ‘불 꺼라’ 하는 구호가 ‘자기 보호’를 위해 나온 것처럼 ‘시민 보호’나 ‘총기 사용 자제’ 역시 스스로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일 수 있다.³⁴⁾

같은 맥락에서 정권에 부여한 언론기관만 습격당한 것을 놓고 “민중의 분노는 폭발적이라고 해서 결코 눈 먼 것은 아니었”(조갑제 1987b, 42)다고 하고, 독립병원을 습격하려다 만 것을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공격하지 않았던 것”(10주년사업회 1989, 292)으로 해석한 것도 일면만의 평가다. 시위대의 그 같은 행동은 도덕적 판단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그러한 정치적 판단은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부산과 마산 모두 관공서 타격을 제지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결국 파출소 수습 곳과 세무서, 사법기관, 우체국과 소방서, 전신전화국 같은 기간시설까지 습격당했다.³⁵⁾ 또 마산에서는 부산과 달리 ‘시민 보호’의 의

34) 여기서 ‘전략적 판단’과 뒷문장의 ‘정치적 판단’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한 ‘판단’이 집단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시위의 도시하층민들이 이질적인 존재의 집합이고 별도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차별적 경험을 토대로 공통의 상황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점과 민가에 돌이 날아갔다. 부산 시위대가 인근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마산의 경우 거꾸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제압했던 것이다. 차이는 힘의 크기였다. 폭력시위는 시위대 규모가 경찰력에 맞설 수 있는 정도여야 가능하고 타격 대상의 선택은 시위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공서 습격을 감행했으되 총기는 탈취하지 않은 것, 민간에 소동을 강요하며 투석했으되 그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것은 정의 관념보다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른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설사 정의 관념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위대 스스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판단이 강요된 것이다. 시위대를 이끈 도시하층민들의 경우 죄의 유무와 무관하게 공권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불량배라는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의 정의 관념이 같기는 어렵다.³⁶⁾

35) 파출소와 경찰서를 제외하고 공권력과 관계없는 기관들은 투석은 했더라도 파괴는 하지 않았다. 마산 시위에 참가한 최상철은 “전신전화국 그 유리창 투석전 할 때도 저희들이 꽤나 먼 거리에서 투석을 했지요. … 시위대들 자체가 방송국까지 가서 방송국에 투석을 한 다든가 기물 파손을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시다.”(기념사업회 2019b, 514)라고 했다.

36) 1980년대 초 부랑아로 취급된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갈 때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시민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형제복지원 채소자들에게 “그들이 끌려갈 때 박수를 보내고 오랜 감금을 눈감았던 부산시민들, 그리고 세상에 나온 그들을 외면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임미리 2019b, 201)이었던 것처럼 부마항쟁의 도시하층민들에게 그들을 불량배로 판정한 세상의 정의는 자신들의 정의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 도시하층민의 항쟁 참여 배경 및 목적

2장에서는 도시하층민들이 밤의 폭력시위를 주도하게 된 과정과 배경, 3장에서는 도시하층민과 학생 및 시민들 사이에 있었던 불화와 차이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도시하층민들은 왜 항쟁에 참여했으며 또 항쟁의 결과로 무엇을 소망했을까. 여기서는 도시하층민의 시위 참여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는 한편 그들에게 폭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1) 시위 참여 배경과 목적

부마항쟁의 배경으로는 우선 정치적으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유신독재에 대한 반감이 제시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관련한 조세 저항, 그리고 박정희 공업화 발전모델의 위기(서익진 2020, 170)와 빈부 격차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언급된 요인 중 김영삼 제명과 부가가치세 도입은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항쟁의 계기 또는 근인(近因)이라면 유신 치하의 정치적 억압구조와 빈부격차 확대 등은 원인(遠因)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김영삼 제명과 부가가치세 도입이 그러한 불만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항쟁 기간 표출된 구호를 통해 이러한 배경들이 어떻게 가시화 되었나를 살펴보겠다.

(1) 부가가치세 도입과 조세 저항

부마항쟁의 배경으로 조세 저항이 처음 언급된 것은 김재규의 「항소이유보충서」에서다. 김재규는 문건에서 부마항쟁은 “물가고에 대한 반항에 조세저항까지 겹친 민란” 등으로 표현했다. 이 같은 시각은 국군보안사령부(1980), 『부마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이 연구에서 참고한 대부분의 문헌에도 비슷한 주장이 등장한다. 또한 항쟁 기간 있는 세무서 타격과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김원(2006)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이 항쟁의 배경이라는 주장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불만 또는 분노가 세무서 타격과 철폐 요구 구호로 가시화되었다는 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세무서 타격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는 내용은 항쟁 당시 고교 3년생으로 참여한 박영주가 마산항쟁 과정을 정리한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 과정」³⁷⁾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8일 마산세무서 공격 당시) 시위 군중 속에서 상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먹을 치켜들고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라!’ ‘부가가치세를 없애라!’고 외쳤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10월 25일)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여서 세금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세금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은 세무서의 공격, 시장통에서의 시위대에 대한 상인들의 지원 등으로 표출됐는데, 이것은

37) 1985년 발행된 『마산문화 4』에 게재됐다가 1989년 『자료집』에 다시 저자명을 빼고 전재됐다.

말하자면 조세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10주년사업회 1989, 292·293)

위 문장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10월 25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매해 1월과 7월의 25일이다. 또 마산세무서 타격이 18일에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은진은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에서 “당시의 일부 관찰자들은 10·18 마산민주항쟁 시기에 시청 건너편의 세무서가 가장 혹심하게 시위대들의 공격을 당했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미친 영향을 강조”(이은진 2008, 68. 강조점은 연구자) 했다면서도 막상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토대로 항쟁 전개 과정을 정리한 부분에는 18일 세무서 타격 사실을 적지 않았다. 또 앞의 문장에서 ‘일부 관찰자’는 박영주로 보인다.³⁸⁾ 다만 19일에는 “5백여 명 정도의 시위대가 세무서, 법원, 시청 등에 투석”(10주년사업회 1989, 217)³⁹⁾ 했다는 증언이 있다.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도 박영주의 증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17일 중부산세무서 투석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에 대해서는 증언이 갈린다. 『증언집』에서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에 대한 증언은 모두 면담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만 등장한다. “저는 기

38) 이은진은 해당 문장에 출처를 적지 않았다. 하지만 “10·18 마산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이 박영주의 글에서만 등장하고 해당 글이 수록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자료집』이 참고문헌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박영주의 글을 참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39) 마산 양석우(상업) 증언.

억 안 납니다.”(기념사업회 2013a, 115)⁴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기념사업회 2013a, 416)⁴¹⁾,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뒤에 알았지 그때는 잘 몰랐고.”(기념사업회 2013a, 423)⁴²⁾ 같은 답변이 많다. “세금 많이 받는다 해서 대중들 분노가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 그 부가가치세 문제가 분명히, 어, 이야기 듣고 보니까 분명히 나왔었어요.”(기념사업회 2013a, 306)⁴³⁾, “가끔 학생들이 선창하면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다).”(기념사업회 2013b, 358)는 답변도 있지만 뒤엣것(허진수⁴⁴⁾ 구술)의 경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학생들이 작성한 선언문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대의 15일 선언문 살포에 참여했던 신재식(부산대 법정대)도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를 기억하냐는 면담자 질문에 “그런 것도 기억이 없고. 우리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유신철폐, 언론자유, 독재타도 요거 세 가지가 주 구호”였다고 답했다.(기념사업회 2013a, 356) 허진수는 부가가치세 관련 구호를 들었다면서도 세무서 타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시위대가 세무서도 타격했냐는 질문에) 예, 세무서에도 돌 던지고. 하이튼 뭐 관공서마다 관공서로 보이는 데는 돌을 던졌지요. 그게 만약 동사무소

40) 부산 변재관(동아대 법정과) 구술.

41) 부산 염태철(부산대 공대) 구술.

42) 부산 임정식(부산대 의대) 구술.

43) 부산 류장현(부산대 공대) 구술.

44) 부산 중부교회 교인.

가 눈에 보였으면 동사무소도 그래 했을 겁니다”(기념사업회 2013b, 351).

종합하면, 항쟁 당시 세무서 타격은 여러 공공기관에 있는 일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 철폐 구호는 일부에서 외쳤더라도 전면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더라도 그와 관련한 분노가 항쟁 기간 전면적으로 분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김영삼 제명 사건

1979년 10월 4일 여당인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변칙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다른 도시가 아닌 김영삼과 신민당의 본거지였던 부산에서 항쟁이 시작됐다는 이유에서 ‘김영삼 제명’은 항쟁의 주된 배경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부산시민들의 정치적 항의가 거대한 폭력시위로 이어졌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항쟁에 등장한 여러 구호 중 ‘김영삼 제명 철회’ 구호는 가장 온건한 것에 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구호는 부산과 마산에서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구술자별로 온도차가 있다. 우선 마산에서는 부산에 비해 관련 구호가 적었던 데에다 시위 도중 “‘김영삼’ 연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심의회 2018, 75). 부산에서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들었다 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일부 지지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게 다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씨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 계기만 됐을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기념사업회 2013a, 161).⁴⁵⁾

“김영삼 씨에 대해서는 구호로, 구호로 뭐 어떻게 한 거 같지는 않고요… 길가에서 그럴 때 누가 뭐 김영삼 씨를 뭐 복귀시켜라, 이런 정도였지 특별히 전체가 같이 하는 구호 이런 거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기념사업회 2013a, 395).⁴⁶⁾

“김영삼 씨 구호? 아니요. … 그렇게 뭐 김영삼 씨 개인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은 잘 없어요”(기념사업회 2013a, 493).⁴⁷⁾

“지금 생각해보면 YS와 관련한 구호들이 꽤 많이 나왔던 거 같고”(기념사업회 2013a, 110).⁴⁸⁾

“정당 쪽 사람들 있었는가? 없는가도 모르지만 인제 김영삼 씨에 대한 지지 구호”(기념사업회 2013b, 330).⁴⁹⁾

“마지막날 18일 저녁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 김영삼 얘기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 신민당 당원 (또는) 김영삼 추종자였지 않느냐 … 직접적으로 박정희한테 타격을 안 가하는 거니까 그런 구호가 좀 많이 나와도 군인들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다든지 이런 걸 못 봤어요”(기념사업회 2013b, 357·360).⁵⁰⁾

45) 부산 이동관(동아대 법학과) 구술.

46) 부산 윤영희(부산대 사법대) 구술.

47) 부산 이현호(부산대 공대) 구술.

48) 부산 변재관(동아대 법정과) 구술.

49) 부산 박상도(도시산업선교회 총무) 구술.

50) 허진수 구술.

종합하면 부산에서는 비록 마산과 같이 김영삼 연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없었더라도 시위대 전체가 아닌 당원이나 정당 중심의 연호였고 학생들이 준비한 구호도 아니었다. 또 군경의 온건한 대응으로 미루어 봤을 때 폭력시위대에서 그러한 구호가 나왔을 가능성도 낮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폭력성이 심했던 마산에서 관련 구호가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영삼 제명과 폭력시위의 관련성은 더욱 없어 보인다.

(3) 사회에 대한 불만과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구호

빈부격차 확대 등의 경제적 불평등과 유신 치하의 정치적 억압 구조가 도시하층민들의 대규모 봉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적으로 모든 봉기는 차별에서 비롯됐고 억압적 통치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하층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부격차 관련해서는 부산대 정광진이 작성한 선언문⁵¹⁾에 ‘공평한 소득 분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더라도 시위 과정에서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반면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구호는 부산과 마산의 대부분 시위에서 출현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대 대규모 시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권 퇴진 구호에는 단지 어느 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저항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이 모

51) 정광진이 작성한 「선언문」에는 ‘유신헌법 철폐’,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학원 사찰 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YH사건에서와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전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 중지’를 요구하는 ‘폐정 개혁안’이 담겼다(심의위원회 2018, 78).

두 담겨 있다. 하지만 “유신이 좋든 나쁘든 유신 때문에 난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기념사업회 2011, 259)⁵²)했고 최근에는 ‘대중독재론’이라는 해석이 대두할 만큼 국민 다수가 유신에 동의하고 열광했던 시절이다. 그런 상황에서 유신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질 만한 계기가 없었던 도시하층민들이 어떻게 해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대열에 섞이고 야간에는 시위대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 주대환은 “어린 노동청년들, 깡패들이 앞장”선 마산의 공화당사 습격을 목격하고 이를 “유신체제의 억압에 대한 본능적 반발”(10주년사업회 1989, 212~214)이라고 평가했다. 그가 말한 ‘본능적 반발’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열악한 환경 속에 일을 하고, 다들 그렇겠지만 항상 억눌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표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 속에 어떤 표현하지 않지만, 가슴 한 구석에 웅크려 있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치를 알지 못하고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독재타도! 유신철폐! 구호를 들었을 때, 태어나서 18년 동안 한 대통령이 계속 있다가, 시위대가 그런 구호를 했을 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투쟁을 했던 것 같아요”(기념사업회 2011, 672·673).

52) 마산 손혜규(외관원) 구술. 한일합섬에서 도급공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한 출근 거부 주동으로 해고된 뒤 서적 외관원 일을 하며 중견기업 간부 정도의 월급을 받던 중에 항쟁을 만났다.

위는 마산항쟁 당시 산호파출소 방화에 참여했던 지경복⁵³⁾의 구술이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억눌린 무엇이 있었고 독재타도, 유신철폐 구호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유신독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해졌고 유신을 철폐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억눌림이 컸던 만큼 유신체제가 갖는 억압적 본성도 일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편 유신철폐 구호가 전면적으로 수용된 데 반해 박정희에 대한 시선은 이중적이다. 부산과 마산 모두 파출소 습격 시 박정희 사진을 떼어내 불태운 반면(심의위원회 2018, 93·125) 항쟁 직후 박정희 사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애도의 심정을 보였다.⁵⁴⁾ 박정희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더라도 죽음을 바랐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증언과 사실을 종합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유신철폐 구호로 표출됐지만 그것이 박정희 개인에 대한 분노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박정희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유신체제, 또는 독재정권은 도시하층민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어쩌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정치권력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을 말

53) 지경복은 1962년 마산서 2남1녀의 막내로 출생해 조실부모 하고 중학교 졸업 후 페인트 도색 일을 했다. 그 뒤 정비공장 관급부에서 일을 했으며 항쟁이 났을 때 급여는 7만 원 가량이었다.

54) “사회 자체에 대한 불만은 많았지만 박정희 사망은 조금 참담했다”[기념사업회 2019a, 107. 마산 김경훈(어시장 상인) 구술, “불과 1주일 전에 독재 타도하자고 데모해 놓고 박정희 빈소 가서 울었다”[기념사업회 2019b, 521. 마산 최상철(대림요업 노동자) 구술, “좌우지간 박정희 굉장히 싫어했(지만 사망 소식 듣고) … 30분을 묵념했다”[기념사업회 2013b, 115. 부산 전병진(금세공 기술자) 구술.

하는 것이 아닐까.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을 켜고(기념사업회 2019a, 119)⁵⁵⁾ “죽이자!” 하는 구호가 특별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10주년사업회 1989, 218) 그들에게 ‘아닌 뭔가’와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술집,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이들 업소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주인보다도 더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불만은 관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관청과 업주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향한 불만이였다. 낮은 임금과 형편없는 생활환경 이상으로 그들을 사회의 불만층으로 만든 것은 인간답지 못한 대우였다. 손님들과 업주로부터 받는 경멸과 손찌검은 거의가 청소년들인 이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놓기가 일쑤였다”(조갑제 1987a, 307).

위의 인용문은 부마항쟁의 주역인 20, 30대 도시하층민들의 분노가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러한 사회 전체에는 자신들을 노골적으로 억압한 경찰과 그 배후에 있는 유신정권뿐 아니라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손님과 업주들까지 포함돼 있다. 마산의 시위대가 과출소와 경찰서, 검찰청 등 공권력과 관계된 기관뿐 아니라 전신전화국, 우체국, 소방서 등 국가기간시설, 심지어 상가와 민가에까지 돌을 던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부마항쟁에서 밤 시위대가 분노를 표출한 대상은 세상 전체였고 그들이 뒤엎고자 한 것도 유신정권뿐이 아니

55) 마산 김덕진(수출자유지역 노동자) 구술.

라 세상 전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권력 일반이나 사회 전체를 적대시하거나 전복하고 싶은 욕망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집단에게는 어느 때나 잠재해 있다. 왜 유독 부마항쟁에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질문이 잘못됐다. 무엇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에서 도시하층민의 폭력을 묘사한 연구가 제법 있다(오제연 2014; 김정한 2012; 김원 2009). 부마항쟁과 다른 점은 학생 또는 지식인들이 그들의 폭발을 제지했다는 것과 그렇지 않았더라도 역사에서 소거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부마항쟁에서는 그들을 제지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고 소거된 역사는 최근에 와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분명히 민주화에 기여를 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런 소묘 사태고 ...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위였다고 보죠. ...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 1979년 여름에 태풍이 와서 산사태가 발생해 검문소에 근무했던 헌병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거기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언집을 발간해 부마항쟁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자부심을 높이려면) 그런 데 대한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바탕 위에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 국가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기념사업회 2019b, 531).⁵⁶⁾

위 인용문에서 구술자는 부마항쟁에 참가한 시민들과 같은 해 여름 산사태로 사망한 헌병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 양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원해야 하고 그것이 민주화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술자의 이 같은 생각은 도시하층민의 분노가 독재정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한 것은 경찰과 유신정권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고, 민주화를 통해 세상이 좋아졌다면 부마항쟁뿐만이 아니라 이 유 없이 억압당하고 희생당한 모두의 공로라는 얘기다.

2) 밤 시위에서 '폭력'이 갖는 의미

앞에서 밤 시위의 도시하층민들이 갖는 분노는 사회 전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왜 오히려 '폭력'이었을까. 그들에게 폭력은 어떤 의미였고 폭력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우선, 시위 공간은 해방구이자 놀이터였다. 최초로 학생들이 마련한 시위 공간은 그간의 금지를 넘는 공간이었다.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는 신성한 존재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시위에서 경찰에게 돌이 던져졌고, 박정희와 유신은 타도와 철폐의 대상이 됐다.

56) 마산 최상철(대림요업 노동자) 구술.

시위 공간은 일상에서는 금지돼 있던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해방구’였던 것이다. 또한 시위 공간은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놀이터이기도 했다. “데모한다고 하면 음료수도 주고 환타도 주고 빵도 주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 와 와 데모하러 가자고 해서 갔어요”(기념사업회 2019a, 96.97),⁵⁷⁾ “호기심도 있고 하니까 참여하게 된 거죠”(기념사업회 2019a, 115)⁵⁸⁾ 같은 증언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방구이자 놀이터인 시위 공간에서 ‘폭력’은 기분 좋은 일자 하나의 놀이였다. “돌을 던지니깐 기분이 어땠더냐?”는 질문에는 “기분이 좋더라” 하고 답했으며(10주년사업회 1989, 214) “기분에 그렇게 했다”(기념사업회 2019a, 524)거나 “기 한번 펴보자, 이런 심정들”(기념사업회 2011, 352) 같은 증언도 있다. 시위대의 폭력은 아이들 전쟁놀이처럼 일종의 놀이기도 했는데 다음 구술에서 알 수 있다.

“길거리 한 가운데 소주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걸 앉아서 마시다가 경찰서로 확 밀고 들어가고, … 노래 부르고 놀다가, 한 번 가자! 공격 앞으로! 하면 와아악 하고 밀고 들어가고”(기념사업회 2019b, 52)⁵⁹⁾

정리하면 폭력은 시위대에게 기분 좋은 일이자 일종의 놀이였다. 하지

57) 마산 김경훈(어시장 상인) 구술.

58) 마산 김덕진(수출자유지역 대성공업 노동자) 구술.

59) 마산 김경수(불씨촌 단원) 구술.

만 의문은 남는다. 그들은 왜 구속과 같은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놀이를 했을까.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무기 회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무기 반납을 거부한 무등강생원생들은 “너희들 때문에 광주 온 시민들이 폭도라는 누명을 쓰게 됐다”는 윤영규 수습위원의 질책에 “여보시오! 당신만 애국자요? 우리도 애국 한 번 합시다.”라고 했다.⁶⁰⁾ 배운 사람들이 말과 글로 애국을 한다면 그들은 무기를 들고 몸으로 애국을 한다는 소리였다.

그들 또한 ‘사회적 인간’이고 폭력은 항쟁 공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악셀 호네프는 사회적 투쟁의 도덕적 형식이 ‘인정투쟁’이고 그 심리적 동기는 무시 또는 모욕에서 비롯된 분노라고 했다(호네프 2011, 16-17). 1979년 부산과 마산의 도시하층민들은 사회 전체로부터 받은 무시와 모욕, 그로 인한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를 갖지 못했다. 그들의 말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했기에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따라 외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언어가 아니었다. 항쟁 기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불 꺼라’였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깔려야 그들의 언어를 밖으로 꺼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때의 언어는 바로 ‘폭력’이었다. 폭력만이 도시하층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는 유일한 언어였던 것이다.

60) 국회 회의록: 제13대국회 제145회 제29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02월 23일).

5. 결론

본문에서 낮 시위와 밤 시위가 갖는 차이, 시위 참가자 및 인근 시민들 간의 관계, 도시하층민의 항쟁 참여 배경과 폭력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 보았다.

우선, 낮 시위와 밤 시위는 주체와 양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학생이 주체였고 폭력이 있었지만 경찰 저지선을 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후자는 일반 시민이 훨씬 많았고 그 중에서도 도시하층민들이 방화와 파괴를 포함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밤 시위대는 파출소와 경찰서 같은 공권력뿐 아니라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등 국가기간시설까지 타격했고 마산에서는 ‘불 꺼라’ 하는 외침과 함께 인근 상가나 민가에도 투석했다. 도시하층민들이 폭력시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시위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시하층민들이 가진 분노는 항쟁을 이끄는 유일한 에너지가 됐다. 당국은 불량배들이 학생시위에 편승했을 뿐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생 일부가 거꾸로 ‘불량배’들의 폭력시위에 편승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시위 참가자 및 인근 시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다. 폭력시위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응은 지지와 응원, 가담과 합세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많았다. 또 부정적 반응은 대체로 제지나 억제보다는 회피와 외면, 거부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여기에 반해 마산에서 밤 시위를 이끈 도시하층민들이 인근 시민들에 보인 태도는 위협과 폭력을 수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였다. 운행 중인 차량을

세워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불 켜진 상가와 민가에 소등을 요구하며 투석한 일이 바로 그렇다. 이것은 시위대가 일종의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새로운 정의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공간에서 앞장서 투쟁하는 그들 자신이 바로 정의였던 것이다. 새로운 정의 아래 파출소와 경찰서는 그들을 억압한 시설로 불태워 없어져야 했고, 관공서와 기간시설은 불의에 복무한 대가로 습격당해야 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유죄’는 아니더라도 앞장서 싸우는 도시하층민들과 동등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정의의 구현을 위해 징발과 차출을 감수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도시하층민의 항쟁 참여 배경과 폭력의 의미에 관해서다.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에 나선 것은 유신체제나 박정희 정권 같은 구체적인 권력이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러한 분노는 어느 사회에서고 있는 것이지만 부마항쟁에서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을 통해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했다. 파출소를 불태웠고 시민들을 복종시켰다. 그들에게 폭력은 정의로운 일이자 기분 좋은 놀이였고,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하지만 한순간이었다. 시위가 끝나고 해방구가 닫히면 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무시와 경멸, 손찌검을 받아내야 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항쟁의 목적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었다. 항쟁이 성공해 유신이 철폐되고 독재가 타도돼도 그들에게 원한과 상처를 심어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항쟁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뒤엎는다는 불가능한 상상이 실체가 되는 일도, 기존의 위계가 뒤집혀 그들이 차별받지 않게 되는 일도 항쟁의 시공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이 연구는 연속성과 포함관계에 관한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두 도시의 밤 시위가 낮 시위의 연속선상에 있는가, 도시하층민이 민중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마항쟁은 대체로 낮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밤 시위 또한 민주항쟁 또는 민중항쟁으로 규정돼왔다. 낮과 밤 시위는 폭력의 양상이 달랐고 주체도 달랐지만 학생시위가 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시위는 항쟁의 일부에 불과했고 부마항쟁과 다른 시위의 차이도 밤의 대규모 폭력시위에 있다.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를 폭력적 방향으로 주도한 것은 학생들을 대신한 것이 아니었고 파출소를 불태우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심지어 상가와 민가에 투석한 것도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의 정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하층민들을 민중의 일부로 간주하려면 양자가 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 부마항쟁에서는 도시하층민들이 시위를 주도했으므로 그들의 목적에 다른 참가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으로도 지식인들이 상정한 대의에 도시하층민들이 민중의 일부로 동참할 것은 요구돼 왔지만 그 반대는 없었다.

최초에 경찰들에게 돌을 던진 것은 학생들이었지만 거기서 기존 질서의 전복을 상상한 것은 도시하층민들이었다. 학생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유신정권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였다. 그들에게는 공권력은 물론 인간적 모멸을 주고 원한을 심어준 손님과 업주들 모두가 전복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희망과 상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항쟁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한 기존 질서와 위계가 뒤엎인 해방구, 바로 시위 현장에서였다. 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도시하층민들에게 민주화나 민중해방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였다. 공권력과 독재정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도시하층민들이 폭력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그들이 갖는 분노를 세상에 드러냈던 시공간, 그것이 바로 부마항쟁이다. ~~XXXX~~

참고문헌

- 경향신문. 1979/10/18. “부산에 비상계엄 선포.”
- 김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29(2). 419~454.
- _____. 2009. 『87년 6월 항쟁』. 책세상.
- 김정한. 2012.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 『역사문제연구』. 제28호. 역사문제연구소.
- 김하기. 2004. 『부산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동아일보. 1979/10/18. “구 내무 첫날 사태 후 회견. 연행자 경중 가려 처리.”
-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부산: 부마민주항쟁 10주년사업회.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1.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 창원: 불휘미디어.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3a.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부산편1』. 부산: 도서출판전망.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3b.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부산편2』. 부산: 도서출판전망.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a.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2』. 창원: 불휘미디어.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9b. 『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3』. 창원: 불휘미디어.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18.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서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서익진. 2020. “박정희 공업화 발전모델의 위기와 부마항쟁.” 『사회경제평론』. 62호. 135~178.
- 오제연. 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 고학생과 도시하층민.” 『역사비평』. 106호. 136~172.
-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임미리. 2019a. “2016~2017년 촛불집회의 두 가지 전선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41호. 13~60.
- _____. 2019b. “‘집승에서 인간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 및 실천의 의의.” 『경제와 사회』. 123호. 182~221.
- 조갑제. 1987a. 『유고! 부모사태에서 10·26 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합성과 총성의 현장 1』. 서울: 한길사.
- _____. 1987b. 『유고! 부모사태에서 10·26 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합성과 총성의 현장 2』. 서울: 한길사.
- 차성환. 2009. “부마항쟁과 지역 노동자대중.” 『기억과 전망』. 17호. 38~363.
- 호네트, 악셀. 2011.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문성훈·이현재 역. 서울: 사월의봄.
- 홍순권. 2011.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항도부산』. 27호. 1~46.

<기타 자료>

- 제13대국회 제145회 제29차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1989년 2월 23일) 회의록.
-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Abstract

The Busan-Masan Uprising, the Area under the Control of Urban Lower Groups

A Study on the 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an-Masan Uprising

Lim, Mi Ri

Professor of Research,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an-Masan Uprising with the aim to identify the reasons why the Uprising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larger stream of democratic or popular movements and underst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Busan-Masan Uprising for the urban lower groups.

The Busan-Masan Uprising began with daytime protests by students, but the night protests were led by the urban lower groups. The students did not have the leadership to lead the demonstrators, and the anger of the urban lower groups was the sole energy driving the Uprising. The urban lower groups' actions in night-time demonstrations were made possible as they were the new leading actors of justice in the protest space absent of its existing hierarchy and order.

The urban lower groups participated in night-time demonstrations not because they opposed to a specific political power but because of their anger against the state power or power in general.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s did not have a specific goal; the meaning lay in the act of demonstrating itself. For them, violence was meaningful as a just action and a pleasant play, and as the only language that could make them visible.

Although the students initiated the Busan-Masan Uprising, the night demon-

strations were not an extension of the students' demonstrations. For the urban lower groups who were not a part of the people or citizens and whose purpose lay in the protest space itself, the demonstrations were not a democratic or popular movement. The Busan-Masan Uprising constituted a time and space where the urban lower groups, who were ignored and discriminated against not only by public power and dictatorships but also by the whole society, made themselves visible through violence and let the world know of their anger.

■ **Keywords:** The Busan-Masan Uprising, Urban Lower Group, Violent Demonstrations, Night Demonstrations, Violence on the Abstract Front,

투고: 2021/03/31 심사: 2021/04/15 확정: 2021/05/07